

블로그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인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입사문제를 놓고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입사과정과는 사뭇 다른 모양세로 크고 작은 대여섯 곳에 면접을 치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나는 한참 부족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마치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사뭇 다른 모양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IT분야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망자의 블로그를 참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주 관례처럼 이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로그에 비쳐진 모습만으로 업무능력을 신용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없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며, 무의미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결국에는 정상적인 업무진행 조차 힘들어지는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네임 벨류(Name value)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며, 이 전략이 적중하여 마음에 있던 회사에 입사하고 업무실적을 뛰어나게 평가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직이나 전직뿐만 아니라 출판을 한다거나, 데뷔를 한다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분야로 뛰어들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라는 표현수단이 이러한 목적만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이 블로그를 예로 들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뭔가 확고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 또는 재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덥잖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배우고 있지만 관심사에서 벗어나면 곧장 다른 내용들로 가득 채워 버릴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써 자그마한 실험실이자 의견공유 및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년 전의 저는 원래 **이런 녀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열심히 블로깅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네임 밸류라면, 현재로서 블로그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글 쓰기가 무섭네요. 젠장~